

第33次 EEI 年次總會 參席記

金 鍾 珠

韓國電力株式會社 理事 兼 企劃部長이며 當協會 常任理事인 筆者는 지난 5月初에 朴英俊 會長을 代理하여 美國 에디슨電氣協會(EEI) 第33次 年次總會에 參席하신 바 있습니다.

아래의 紀行文은 電氣協會誌 創刊號에 掲載될 豫定이었으나 筆者가 原稿執筆 途中에 急遽 泰國 방쪽으로 ECAFÉ會議 參席次 떠나시게 되어 不得已 이번 號로 미루게 되었던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 紀行文과 關聯있는 2篇의 記事가 協會誌 創刊號에 掲載되어 있습니다. 併讀하시던 많은 參考가 될리라고 믿습니다. (P. 30 : 에디슨電氣協會 要覽 · P. 53 : 電力과 美國의 將來)

<事務局>

5月 1日 3時 30分 서울에서 탄 飛行機가 東京, 시아를 다음 세번째로 뉴욕에 着陸하였다. 便利하게 된 世上이다. 뉴욕에 到着한 것은 같은 5月 1日 午後 9時頃 케네디飛行場이었으며 오늘 밤을 쉬게 될 발티모아行 國內線을 타는 곳은 라카르디아 飛行場이었다. 이 두 飛行場을 連結하는 헬리콥터·씨어비스가 있어서 그것을 탔다. 低空飛行으로 觀光案內까지 하여 주었다. 뉴욕의 夜景은 낮 景致보다 아름답다. 特히 開場되고 있는 世界博覽會場을 上空에서 본 夜景은 輝煌燦爛한 것이었다. 疲倦을 느끼며 발티모아 S호텔에 到着한 것은 現地時間으로 밤 12時가 다 되어서였다.

5月 2日 늦게 일어나 다시 飛行機로 마이아미에 到着한 것은 正午頃이었다. 飛行機 안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海岸線, 푸르다기보다는 오히려 靑綠色으로 보이는 海面, 數없이 많은 湖水들, 疲倦도 지루함도 있고 바깥 風景을 내려다보고 있는 동안에 目的地까지 와버렸다. 途中에 케이프·케네디 宇宙基地의 一列로 數없이 서있는 미사일離陸塔이 보이기도 하였다.

豫約된 B호텔의 房은 必要 以上 컸다. 호텔 複道에는 水泳服만 입은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다. 旅裝을 풀고 暫時 休息. 午後 3時頃 EEI會議場이 있는 아메리카나·호텔로 갔다. 걸어서 5分 程度의 距離였다. 따뜻한 햇볕이었으나 海風이 시원하여 못

견딜 더위는 아니었다. 椰子樹科의 熱帶植物이 하늘 높이 街路 兩쪽에 서 있다. 멀리도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오늘 밤에 到着 豫定인 李常務가 기다려진다. 이 호텔은 超現代式 高層建物로 내가 留하는 B호텔이 傳統적인 프랑스式 3層建物인 것과 對照的이다. 會議場으로 쓰이는 호우에는 3,000名을 收容할 수 있고 나이트·클럽, 바아, 수영장, 골프의 그린 등 없는 것이 없다. 라운지에는 10餘個 接受處가 있고 줄지어 會議參加登錄을 하고 있었다. 그 中 한 接受處에 가서 韓國서 大韓電氣協會 朴會長을 代理하여 왔다는 것과 EEI會長 씨슬러氏와 連絡하고자, 한다는 뜻을 말하였더니 씨슬러氏 房에 電話를 걸어 주었다. 氏는 안 계시는 貌樣이고 氏의 女秘書 K嬢이 내려왔다. 嬢은 去年에 朴社長을 모시고 왔을 때도 만난 적이 있는 舊面이다. 嬢이라고는 하지만 40은 되어 보이는 中年에 들어선 분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생각한 것보다도 10才는 나이가 더 많은 貌樣이었다. 李常務, 鄭係長, (編註·獨逸出張의 綜述에 EEI總會에 參席) 그리고 나 세 사람의 登錄을 마치고 名札과 여러가지 會議에 關한 印刷物을 받았다. 미리 모든 것이 準備되어 있어서 登錄카드에 몇자만 記入하면 되었다. 다른 會員들은 20弗씩 내고 登錄하고 있었다. 라비에 있는 sofa에 앉아 會議資料를 읽고 있으니까 마침 씨슬러會長이 지나가다가 반가히 握手를 請한다. 十年 知己의 多情스러운 人事를 하여 주었다. 너무 반가

히 人事를 하나나 周圍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程度였다. 宿所는 不便하지 않으나, 朴社長이 오시지 못하여 섭섭하다, 登錄은 끝냈으나, 오늘 저녁 食事を 같이 할 수 있겠느냐 等等 甚 人事였다.

午後 7時 約束된 場所인 아메리카나·호텔의 후로리디안·룸에 갔다. 호스트는 우리나라에서도 淸平水力發電所 復舊工事を 맡아 한 스톤·엔드·웹스터社였다. 씨슬러會長이 連絡하여 둔 貌樣으로 가슴에 붙이는 名札과 食卓에 名札이 準備되어 있었다. 約 200名 假畵의 손님이 모인 큰 宴會였다. 테이블 하나에 다섯名 乃至 여섯名이 앉게 되어 있었다. 가슴에 붙이는 名札에 食卓番號가 있어 그 番號가 있는 食卓을 찾아가면 自己가 앉을 자리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여기서 E E I 前 會長 블드윈氏, 日本 中部電力會社 社長 井上氏(現在 日本電氣協會 會長)와 그 令息, 오끼나와에서 온 琉球電力公社 副總裁 長嶺氏, 中央配電株式會社 專務 金城氏, 벨기에에서 온 분, 佛蘭西 EDF에서 온 분 등을 만났다. 午後 10時나 되어서 晚餐會가 끝났다. 바로 飛行場으로 나갔다. 11時半 到着 飛行機로 李常務와 鄭係長이 오시게 되어 있었다. 두 분은 파리發 뉴욕經由로 이곳에 오늘 到着하는 것이다. 飛行場까지는 近 1時間이나 所要되며 택시·베터가 8弗을 가리킨다. 팀까지 승하여 9弗은 주어야 한다. 오늘은 발티모아에서 飛行場과 市内 往復, 마이아미에 와서는 호텔이 있는 마이아미·비치에서 飛行場까지 2往復, 택시 값만 30弗 以上을 支拂하고 나니 우리나라 택시 값과 比較하는 등 가슴이 벅근한 氣分이었다. 11時 45分頃 飛行場の 긴 廊下에서 두 분을 만났을 때는 몹시 반가웠다. 벌써 혼자 旅行은 々분한 氣分이었다. 특히 호텔 食堂에서 혼자 食事を 하기로 悤상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大部分의 손님이 夫婦間이나 愛人 또는 親舊끼리 愉快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食事を 하기 때문에 이런 觀光都市에서 외톨로 食事하는 사람은 나 혼자 뿐이었다. 飛行場에서 호텔로 오는 택시 안에서 歐羅巴 이야기, 李常務가 서울을 떠난 4月初 以後의 서울 消息, 會社 消息 등 이야기가 限없이 繼續되었다. 마치 마이아미가 우리나라 領土의 一部나 되는 듯 異國에 와 있는 것을 잊어버린 한 동안이었다.

<今次 會議의 順序>

5月 2日...下午 1시부터 6시까지 登錄.

5月 3日...1次 總會. 下午 2時 30分 開會. 씨슬러會長 司會. 開會辭. 祈禱. 후로리다電力會社 社長 歡迎人事. 講演.

『電氣에너지와 美國의 將來』...씨슬러會長(Mr. Walker L. Cisler)

『教育——우리의 가장 重要的 投資』...버지니아工科大学 總長 하안博士(Dr. T. Marshall Hahn, Jr.)

『變化하는 都市의 危機와 解決方案』...체이스·만하탄銀行 總裁 록펠러氏(Mr. David Rockefeller).

5時半 頃 會議 終了.

5月 4日...2次 總會. 上午 9時半 開會. 씨슬러會長 司會. 開會辭. 祈禱. 講演.

『보다 넓은 協助——繼續의 發展의 關鍵』...클리브랜드電力照明會社 會長 린세스氏(Mr. Elmer L. Lindseth).

『配電分野에 있어서의 進歩』...G E社 支配人 리드벵氏(Mr. Vernon A. Rydbeck).

『成熟期에 접어든 原子力』...美國原子力委員長 씨이보오그博士(Dr. Glennt T. Seaborg).

下午 12時半 頃 會議 終了.

5月 5日...3次 總會. 上午 9時半 開會. 피어슨副會長 司會. 開會辭. 祈禱. 講演.

『對投資家關係——電力會社에 對한 그 重要性』...센시나티電氣가스會社 會長 짐머氏(Mr. William H. Zimmer).

『現今의 會計處理上의 諸問題』...위스콘신公共서비스公社 社長 로마氏(Mr. L. G. Roemer).

『電力會社 一般株의 株價形成問題』...부리스會社社長 하웨스氏(Mr. Stewart S. Hawes).

4次 總會. 下午 2時 30分 開會. 씨슬러會長 司會. 開會辭. 講演.

『우리의 삶이란 文字盤上의 數字가 아니다』(Not in Figures on a Dial)...家庭生活向上協會 會長 로저스嬢(Miss W. M. Rogers).

『2000年代의 空想』(The Road Marked "2000")...웨스팅하우스研究所 所長 兼 副社長 슈프博士(Dr. W. E. Shoupp).

『戰爭과 平和中 美國을 代表하여』...싸우스·카롤라이나陸軍大學 總長 클라이크將軍(General Mark W. Clark).

5月 3日. 月曜日. 개임. 會議 첫날이다. 午後 2時

半에 開會되었다. 會議 直前 씨슬러會長을 만나 李常務와 鄭係長을 紹介하였다. 멀리서 오신 貴한 손님 이라고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옆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紹介하여 주셨다. 會議場에 들어올 때 入口에서 「온·타임·카아드」(on time card: 時間前到着票)를 나눠 준다. 여기에 이름을 써서 會席 앞에 있는 抽籤函에 넣는다. 會議가 끝나면 이 抽籤函을 돌려서 안에 있는 카아드를 充分히 섞은後 예쁜 아가씨가 나와서 그 中 두 장을 뽑는다. 當籤된 사람은 會議가 끝날 때 賞品을 받는데 무슨 傳統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賞品은 트렁크나 손가방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會議 때 제 時間에 參席하는 것을 獎勵함이 目的인 模樣이다. 코리안·타임은 우리나라의 特産物은 아닌 것도 같다. 會議는 씨슬러氏의 開會辭, 마이아미市長의 歡迎辭, 牧師님의 祈禱로 始作되었다. 첫번째 演士는 씨슬러會長이었다. 그의 演題는 『電氣에너지와 美國의 將來』(Electric Energy and America's Future). <編註: 電氣協會誌 創刊號에 全譯文 掲載됨> 內容은 여러가지 統計數字를 가지고 電力事業의 發展相을 說明하고 또 將來도 繼續 發展할 수 있다는 것을 立證하고 있었다. 統計數字 中 讀者에게 興味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만 紹介하던 다음과 같다.

<美國 總 發電可能性>

1963年 2億1千萬 kw
 1964年 2億2千2百40萬 kw
 1965年(想定) 2億3千5百60萬 kw
 (年間成長率 5.9%)

<美國內 民營電力會社 年間 新規 電源開發投資額>

1963年 33億弗
 1964年 36億弗
 1965年(想定) 41億弗

<美國內 民營電力會社 電力施設 設備投資額 總額>

1963年 540億弗
 1964年 570億弗
 1965年(想定) 610億弗

<美國 總 發電電力量>

1963年 1兆1百億 kwh
 1964年 1兆8百億 kwh
 1965年(想定) 1兆1千4百億 kwh

<美國內 民營電力會社 可能出力 增加>

1960年 1億3千8百萬 kw
 1980年(想定) 4億9千3百萬 kw

<美國內 民營電力會社 發電電力量 增加>

1960年 6千1百億 kwh
 1980年(想定) 2兆3千億 kwh

<全美國 平均 電力料金の 趨勢>

1940年 2.1센트
 1964年 1.6센트
 (이 期間中 一般物價는 2.4倍로 上昇)

<全 에너지消費量 中 電力에너지의 比率>

1930年 約 10%
 1960年 約 20%
 1980年(想定) 約 30%
 2000年(想定) 約 40%

<過去 50年間 平均 年間 需要成長率>

電氣에너지 7.17%
 全體에너지 2.9% (이 數字는 GNP 成長率과 同一)
 이것은 에너지市場에서의 競爭에서 電氣가 얼마나 優勢한가를 實證하는 것이다.

<電力과 가스의 價格 趨勢 比較>

1935年 指數를 100으로 할 때
 1964年
 { 電力 約 70
 { 가스 約 190

<電氣에너지의 새로운 市場으로서 가장 有望視되는 하나가 家庭電熱이다>

家庭電熱戶數
 1956年 30萬戶
 1964年 200萬戶
 1965年 225萬戶
 1980年(想定) 1,900萬戶

끝에 가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美國은 神의 祝福을 받은 나라이며 그 中에서도 電力事業은 繼續的인 發展을 祝福받고 있다. E E I는 美國內 電力會社 相互間의 協助와 情報交換 뿐만 아니라 國際의 으로도 國際協助處(A I D)와의 協同下에 많은 貢獻을 하여 왔다. 우리들의 敬愛하는 親舊 J. B. 토마스氏가 이러한 國際協助團의 團長으로 훌륭한 業績을 남겼다. (中略) 豐足한 電力이야말로 近代의 基盤을 이룩한다.」 以上이 씨슬러會長 講演의 要旨였다.

다음은 버지니아工科大學長 T. M. 하안博士의 講演. 題目은 『教育——우리의 가장 重要한 投資』였다. 大端히 짧아 보이고 銳利해 보이는 분이었다. 內容要旨는 教育과 知識의 重要性을 아래와 같은 諸點에서 例를 들어가며 強調 力說한 것이었다.

1. 오늘날 知識은 곧 富強을 意味한다.
2. 人類文明의 基本을 이루고 있는 工學技術은 前時代에서와는 지금 그 樣相이 매우 다르며 美國의 오늘날의 威信있는 地位는 教育에 더 큰 努力을 꾸준히 傾注한데 起因한다.
3. 自由企業體系에서 새 知識을 開發하고 젊은 男女를 訓練하는 것은 利益과 經濟性에 密接한 相關關係가 있다.
4. 옛날부터 「끊임없이 배우라」고 한 말이 있는데 오늘날 그것은 더욱 切實하다.
5. 競爭의 市場에서 沒落하지 않으려면 時代에 適合한 技術과 能力이 必要함을 銘心해야 한다.
6. 앞날의 希望은 오늘 바로 이제 우리가 모든 水準에서 教育하는데 있다.

저녁 6時에는 씨슬러會長이 全會員을 招待한 파티가 있고 8時부터는 繼續해서 會長의 外國 손님들의 晚餐 招待가 있었다. 파티에는 數千名의 손님이 參席하였다. 會長과 專務理事 內外분이 호스트로서 人事를 하였다. 호스트와 握手하기 爲하여 길고도 긴 줄을 지어 기다려야만 했다. 握手가 끝나는데만 約 두時間이 걸렸다. 場所는 아메리카나·호텔 後庭의 넓은 곳. 시원한 海風은 오히려 추을 程度였다. 이 파티에서는 벌써 모두가 舊面인양 歡談하였다. 여기서 우리 나라에 電力調查團의 一員으로 다녀간 배리氏(Mr. Bary)를 만났다. 氏는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하였다. 우리 一行 셋을 여러 사람에게 紹介하고 韓國電力의 지난 數年間의 飛躍의 發展을 자랑하여 주었다. 勿論 自己 夫人도 찾아와서 紹介하였다. 氏는 露西亞에서 工科大學 電氣工學科를 卒業하고 美國에서 다시 MIT 工科大學 電氣工學科를 나온 秀才이며 電力調查團에서는 電力需要想定과 電源開發計劃의 綜合을 擔當하는 가장 重要的한 멤버이었다. 名啣에는 「公共事業經濟專門家」로 되어 있다. 그 方面에 著識도 있는 분이다. 氏와 한참 동안 歡談하는 사이에 많은 時間이 갔다. 다음에 著名한 科學者 H博士와 만나 이야기하였다. 越南戰爭에 美國이 介入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學生때모는 조용하냐는 等 質問이다. 요즘은 조용한 模樣이다. 그것보다도 지난 3, 4年 동안에 電力生産이 두배로, 國民所得이 70弗에서 95弗로 急增한 것, 大規模 發電所를 몇 個나 國內技術로 完成할만큼 技術이 飛躍적으로 發展한 것 等 좋은 點보다는 어두운 面만

報道하는 것인지 또는 報道는 兩面 다 하는데 國民이 關心을 어두운 面에 더욱 기울이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더니 사람의 心理가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욱 興味를 느끼는 一面이 確實히 있는 模樣이다, 그렇게 韓國經濟가 發展하였습니까 하며 오늘 저녁에 많은 것을 배웠다고 人事를 하였다. 정말 人事인지 비꼬는 말인지 鈍한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저녁 8時가 되어 파티도 끝날 무렵에 그곳을 나왔다. 파티가 있는 동안 假設舞臺 위에서 南美人으로 보이는 男子 7, 8人이 자즈音樂을 演奏하고 있었다. 아마 쿠바 避難民일 것이다. 어제 낮 某處에서 만난 쿠바 避難民은 不過 數個月 前에 北으로 쿠바를 脫出 避難해 왔다는 이야기였으며 우리가 韓國에서 왔다가 지금 쿠바에는 相當히 많은 北僑 民間人(技術者 等)이 와 있다는 所聞을 傳해 주었다. 마이아미 近處에만 數萬의 쿠바 避難民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제 저녁 택시 運轉手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파티에서 나와 바로 會長이 外國 손님만을 招待하는 晚餐會 場所인 같은 아메리카나·호텔의 후로리디안·룸으로 갔다. 今年에는 外國 손님이 昨年の 約 倍로 20餘名이나 되었다. 어제 저녁 晚餐會에서 만난 분 外에 東京電力 青木會長, 그의 隨行員인 原子力工學을 專攻한다는 젊은 분, 印度代表, 벨기代表 等을 만났다. 會長이 손님들의 訪美를 歡迎하는 人事를 하였다. 韓國에 關해서도 昨年과 今年 兩年을 繼續 參席하여 주었다는 人事와 韓國 電力事業의 急激한 發展相 等에 言及이 있었다. 손님을 代表하여 歐羅巴電氣協會를 代表하는 獨逸人이 答辭을 하였고 스키즐에는 없는 模樣이나 印度代表(水資源局長格인 分)가 自進하여 招待하여 주어서 感謝하다는 人事와 會議에 參席하여 國際協助과 技術情報交換이 얼마나 有益하고 世界平和維持에도 큰 貢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는 所感을 披瀝하는 스피치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의 꽃이 피고 食事を 하고 하는 동안에 10時半이나 되어서야 晚餐會는 끝났다.

5月 4日, 火曜日, 맑음.

會議 第2日, 9時부터 始作. 오늘도 온·타임·카아드를 써넣었다. 講演 始作. 첫째와 둘째번 講演內容은 省略하고 셋째번을 紹介하면 演士는 有名한 原子物理學者인 美國原子力委員長 G. T. 서이보오그(Seaborg)博士. 演題는 『成熟期에 접어든 原子力』. 內容 要旨는 다음과 같다.

最近 聯邦電力委員會(Federal Power Commission)가 發行한 全國電力調查報告書(National Power Survey)에 依하면 1980년에 있어서의 年間 電力需要量은 2兆8千億 kwh로 想定되고 있다. 이와 같은 急增하는 電力需要를 充足시키기 爲하여 電力事業體들은 原子力發電에 깊은 關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42年 12月 2日 世界 最初로 核分裂連鎖反應이 시카고에서 成功한 後 1954年 原子力法の 通過等을 거쳐 1963年 12月에는 不過 21年の 年輪으로 經濟性에 根據한 大規模 原子力發電所 建設이 決定 發表되었고 1964년에는 1970年代 初까지 民間會社로 하여금 自己 發電所에서 核燃料를 所有토록 하고 政府는 民間의 우탄 委託濃縮을 擔當하는 法案이 議會를 通過하였다.

1962年 A E C가 作成한 「大統領에의 報告書」에 依하면 美國의 原子力開發은 다음 4大 目標의 達成을 志向하고 있다. 即

1. 經濟的인 原子力發電의 實證.
2. 開發費用을 漸次的으로 더 많이 負擔할 수 있는 原子力産業의 育成.
3. 核分裂性이 없는 物質을 核分裂性 同位元素로 轉換시킬 수 있는 增殖爐의 開發.
4. 海外 友邦과의 適切한 協助. 友邦에 對한 援助를 통한 技術의 主導權의 維持.

이 4個 項目中 1, 2項은 이미 成功的으로 實踐되고 있다. 即 이제 原子力發電所가 安全하게 經濟的으로 民需用 電力을 生産할 수 있다는 것을 實證한 數基의 輕水爐가 運轉狀態에 있다. 核燃料의 보다 効率的인 利用을 期하기 爲한 增殖爐의 開發이 3項의 目標이다. 熱中性子爐에 比하여 減速材를 必要로 하지 않는 高速增殖爐는 $U^{235}-Pu^{239}$ 사이클에서 効率が 높고 倍增時間이 짧아 最終目標로 考慮된다. 第4項 友邦과의 協助 및 技術援助에 對하여는 美國産業界가 이 目標을 爲하여 많은 機器, 技術 및 訓練을 輸出하여야 할 것이다.

이날 會議는 午前으로 끝났다. 會議 途中 배리氏와 만나 電力調查團에서 作成한 10年 電力需要 想定에 關하여 討議하였다. 10年間 均等成長으로 想定한 調查圖案에 對하여 初期 5年間을 높게 보아야 하는 理由를 說明하였더니 理解가 가는 模樣이나 이미 調查團이 解散되었으므로 理解가 가는 程度로서는 이미 作成한 報告書의 內容을 바꿀 생각은 없는 模

樣이었다. 午後에는 市街地 求景, 水泳 등으로 지내고 저녁은 웨스팅하우스社의 招待를 받았다.

5月 5日. 水曜日. 會議 第3日. 9時부터 開會. 온·타임·카아드를 써놓고 祈禱後 講演 開始. 오늘은 午前中 講演 3題가 繼續되었으며 午後에 다시 2時半에 開會하여 講演 3題를 끝마쳤다.

前日 約束한 바에 依하여 午後 5時 30分 아메리카나·호텔 914號室에서 李常務와 같이 會長 씨슬러氏를 만났다. 暫間 人事交換後 事務的인 本論에 들어갔다. 첫째 에디슨誕生日國際祝祭를 韓國에서 開催하는 問題에 對한 會長의 見解는 다음과 같이 披瀝되었다. 來年에 韓國에서 開催하는 것은 保留하는 것이 좋겠다. 國際의 行事로서 하기 前에 2年乃至 3年間 國內行事로서 「電氣의 날」 記念行事를 가져 經驗을 쌓은 後에 國際行事를 하는 것이 좋겠다. 韓國에서 하면 日本보다 못할 수는 없지 않으나, 日本보다 좀 더 잘했으면 한다. 來년에는 歐羅巴에서 하게 될 것 같다. 아직 決定的은 아니지만 벨기, 和蘭, 룩셈부르크, 3個國 合同으로 하겠다는 提議가 와 있고 벨기國王께서도 大端한 關心을 表明하고 계신다. 한번은 外國 한번은 美國內에서 隔年으로 外國에서 하게 되어 있으므로 韓國에는 充分한 準備나 雰圍氣造成이 된 다음 1968年 頃에 할 것을 目標로 하는 것이 좋겠다. 來년에는 國內行事로 하더라도 내 自身(씨슬러會長 自身)이나 에디슨財團 副會長이 參席하도록 하겠다는 內容의 懇曲한 말씀이었다. 滿足스럽지는 않으나 納得이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처음 要請을 固執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海上쇼를 團體로 求景하였다.

5月 6日. 아침 8時 30分 飛行機便으로 마이아미를 떠났다. 마이아미에서의 4日間은 정말 奔走하게 疲勞를 푼 사이도 없이 보였으나 또한 즐거움과 얻은 것이 많았다. 會議演說을 통한 새로운 知識, 많은 權威者들과의 歡談에서 얻은 實感있는 經驗, 여기서 親分이 생긴 여러 電力界 重鎮과의 繼續된 意見交換(書信을 통한) 등 所得이 많았다고 생각하며 우리 나라 外換事情만 許容한다면 더 많은 人들이 이러한 機會를 利用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잠기면서 마이아미의 하늘을 作別하였다.